



## KIA 주효상 “60경기 출전 목표로 뛰겠다”

“올 시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60경기 출전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KIA타이거즈 포수 주효상이 2026시즌 비상을 꿈꾸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주효상은 “올해 겨울에도 매년 하던 것처럼 열심히 준비했다. 마무리캠프 이후 2주 정도 쉬고 다시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특히 마무리캠프에서는 훈련량도 많았고, 펀딩을 정말 많이 뛰었다. 이후 체력적으로도 좋아졌고, 부상을 안 당할 수 있게 몸을 잘 만든 것 같다”고 균형을 전했다.

2016년 1차 지명으로 넥센(현 키움)에서 프로로 데뷔한 주효상은 2022년 11월 트레이드로 KIA에 합류했다. 그는 2023시즌부터 주전 포수로의 활약을 기대받은 선수였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2021년 받았던 팔꿈치 인대수술의 여파였다. 결국 그는 2023시즌 19경기 32타수 29타점 타율 0.063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2024시즌 역시 마찬가지였다. 빼조 각 제거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으면서 1군에서 자취를 감췄다.

시련이 계속되면서 그는 은퇴까지 생각했다.

주효상은 “KIA에 트레이드로 오고 난 뒤 제대로 된 활약을 못했다.

심적으로 힘들었다가보다는 몸이 마음

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게 정말 답답했다”면서 “결국 2025년 초에는 야구를 그만 두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동혁 팀장님이

부상 딛고 몸상태 회복…마무리캠프서 체력 강화

수비 강한 자신감…“도루저지율 4할 충분히 가능”



주효상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는 1군으로 졸업돼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1군 최종 성적은 8경기 15타수 5안타 1타점 타율 0.333. 2루타 2개를 터트렸고, 수비에서도 강한 송구로 견제함을 뽐냈다.



‘조금만 더 해보자’라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계속 야구를 이어갈 용기가 생겼다”고 회상했다.

인고의 시간을 거친 그는 2025시즌 반짝 활약을 펼쳤다. 2군에서 48경기를 뛰며

122타수 33안타 5홈런 23타점 타율 0.270

으로 분전했다. 시즌 막바지에는 1군으로

졸업돼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1군 최

종 성적은 8경기 15타수 5안타 1타점 타율

0.333. 2루타 2개를 터트렸고, 수비에서도

강한 송구로 견제함을 뽐냈다.

주효상은 “지난 시즌 오랜만에 1군에 올

라온 만큼 설렜고, 월피언스필드에서 뛴 것 만으로도 좋았다”면서 “당시 안타를 치든 못 치든 2군에서 준비한 만큼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편안하게 하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러웠다”고 설명했다.

KIA는 이번 겨울 포수 한승택이 kt로 등

지를 옮겼다. 주전이자 백업으로 활약했던

포수다. 그의 빈자리로 주효상이 기회를 잡

게 됐다. 특히 주전 포수 김태균도 올해가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한준수와 주효

상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주효상은 “2023년 당시에도 (한)승택이 형이랑 경쟁 구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때 그런 걸 느꼈는데 올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이번에는 2군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최대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KIA 선수단은 지난 23일 출국, 25일부터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에 위치한 아마미카와쇼 구장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다. 주효상은 이번 스프링캠프 기간에서 수비 강화에 집중한다.

그는 “확실히 수비가 우선이다. 이 부분에서 최대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눈도장을 찍고 싶다”면서 “도루저지율 40%는 달성 할 자신이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80경기를 뛰면서 38% 정도는 했던 경험이 있다. KIA 투수들은 키도 빠르고 경제도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로 KIA 아직 4년 차를 맞은 그는 현재까지 1군 출전 경기가 단 27경기에 그쳤다. 올해는 1군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계획이다.

주효상은 “1군에서 최대한 기회를 받고 경기를 뛰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면서 “내년 잠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목표를 적는다. 올해 역시 작성했다. 60경기 출전이다. 페넌트레이스 절반에 가까운 경기는 꼭 소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구례 체육 만들 터”

구례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전남장애인체전 성공개최 등  
체육 복지 향상 시스템 마련

전남 구례군이 장애인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26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 23일 구례군청 본관 2층에서 ‘구례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당연직 회장인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신임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해 구례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2026년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례군장애인체육회 규약 승인(안), 임원 선임 및 임명 동의(안), 시무국 운영규정 제정(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



구례군은 지난 23일 구례군청 본관 2층에서 ‘구례군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을 심의·의결했다.

구례군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전남 도장애인체육회의 지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장애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을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례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마음껏 즐기고, 장애인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 “구례군장애인체육회 창립은 구례군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출발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감동과 화합의 대회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김시우, 골프 세계랭킹 37위…한국 선수 유일한 ‘톱50’

PGA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6위…42위서 5계단 상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공동 6위로 마친 김시우가 세계랭킹 37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26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42위보다 5계단 상승한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 톱 50에 오른 건 김시우가

유일하다.

김시우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 타이 피트다이 스타디움코스(파72·7210 애드)에서 끝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그는 올 시즌 개막전인 소니 오픈에서

공동 11위에 오른 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 15를 달성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부상으로 PGA 투어 새 시즌 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임성재는 지난주 48위에서 55위로 7계단 떨어졌다. LIV 골프로 적을 옮긴 안병훈은 106위. 김주형은 112위. 김성현은 147위를 기록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통산 20승을 거둔 스코티 세플러(미국)는 굳건하게 세계랭킹 1위를 지켰고, 로리 매킬로이

(북아일랜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뒤를 이었다.

4위를 달리던 젠더 쇼플리(미국)는 6위로 떨어졌다. 러셀 헨리(미국)와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는 한 계단씩 상승한 4위와 5위다.

DP월드투어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

래식에서 우승한 페트리 리드(미국)는 44위에서 29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김시우

## KIA, 새 시즌 캐치프레이즈 ‘다시, 뜨겁게’

정상 재도전을 노리는 KIA타이거즈가 2026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뜨겁게’로 확정했다.



운 응원을 모두 아우르는 캐치프레이즈다. 타이거즈 구성원 모두의 열정으로 그리운드를 뜨겁게 달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년간 ‘포효하라’, ‘압도하라’ 등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낸 KIA는 올해 다시금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했다.

‘다시, 뜨겁게’는 선수단의 불타는 투지, 프론트의 아낌없는 지원, 팬들의 뜨거

여기에 매 순간 팬과 함께 하고, 매 경기 최고의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자 는 의미인 ‘Always KIA TIGERS’를 합쳐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았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모굴 정대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첫 메달 정조준

한국 선수 최초 프리스키 세계선수권 입상·모굴 첫 메달

한국 스키·스노보드를 통틀어 역대 동계올림픽에선 단 하나의 메달이 나왔다. 스노보드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평행대회전 종목에서 이상호(넥센원가드)가 2018년 평창 대회 때 따낸 은메달이다.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코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선 사상 최초의 ‘멀티 메달’과 금메달도 내세울 기대하고 있다.

안팎에서 입상 후보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가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류인 모굴이다. 모굴은 선수들이 스기를 타고 1m 남짓한 높이의 눈 둔덕(모굴)으로 뒤덮인 코스를 빠르게 내려온 뒤 점프대에서 날아올라 공중회전도 펼쳐 속도와 기

교를 한 번에 민기할 수 있는 경기다.

동계올림픽에선 프리스타일 스키가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1988년 캘거리 대회부터 포함돼 1992년 알卑르빌 대회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열려왔으며, 이번 대회에선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달리며 승부를 겨루는 듀얼 모굴도 신설됐다.

현재 한국 모굴의 대표주자는 2005년 생 정대윤(서울시스키협회)이다.

만 2세부터 스기를 타고 모굴도 어린 드러냈다.

시절 시작해 자연스럽게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성인 무대에서 도 그는 굵직한 이정표를 남기고 있다. 지난해 2월 카세션선수권 3위 정대윤

자즈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모굴 종목에서 입상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선 프리스타일 스키를 통틀어 한국 최초의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만 21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뤘지만, 늘 ‘奚길’만 있었던 건 아니다.

정대윤은 “올해로 월드컵에 출전한 지 6년 차인데, 5년 차 초반까지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서 그 시기엔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종합 우승이 선수로서 최종 목표다. 특히 ‘올림픽 첫 싱글·듀얼 모굴 석권’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